

유튜브 '사내뷰공업'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웃음 트렌드에 일조하고 있는 김소정 동문을 만나, 그의 발자취와 현재를 들어봤다.



학생 건강관리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짚어봤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대학주보



양캠퍼 동아리 박람회
활발해진 캠퍼스

양 캠퍼(양캠퍼)에서 중앙동아리 박람회가 열렸다.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국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다. 총 59개의 양캠퍼 동아리들이 참여했다.(관련기사 4면)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국제캠 보궐선거 22일부터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국제】2023학년도 학생회 보궐선거가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학생회가 궐위 상태인 1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중 후보자가 등록된 14개 선거구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총학생회 선거(총선거)에서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공식인 단위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학과들은 총학생회칙에 따라 2022학년도 학생회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며 현재 비대위가 학생회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 상태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은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16개 학과 선거구 중 입후보된 선거구는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중국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산업디자인학과 ▲PostModern 음악학과 ▲골프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응용화학 ▲전자공학과 ▲생체 의공학과이다. 이중 스포츠지도학과와 전자공학과 선거구는 경선, 나머지 선거구는 단선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식품생명공학과는 오는 11월 총선거에서 2024학년도 학생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권예성(건축공학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단과대학 단위까지 모두 선출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준비하기에 선거 관리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학생이 학생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대면+혼합수업, 중간·기말 시험은 대면으로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2023학년도 1학기 수업과 시험 방식이 확정됐다. 직전학기인 2022학년도 2학기와 유사한 형태다.

우리학교는 이번학기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합된 ‘혼합형’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교양과 이론·복합 전공 수업은 시험 주간(2주)을 제외한 대면 수업 8주가 충족될 시, 나머지 5~6주는 교수의 재량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실험·실습 및 실기 전공 수업은 지난학과와 동일하게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학기에는 배정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수업에 한해 ‘혼합형’ 수업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학기부터 배정 인원과 관계없이 ‘혼합형’ 수업 방식이 적용된다. 학

사지원팀은 “지난학기 배정 인원 에 따른 혼합형 수업 적용 여부에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보충 강의(보강)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면 보강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교강사의 원활한 보강을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학생과 같이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면 및 혼합형 수업의 총비율은 이전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2월 28일 강의계획서 기준으로 2023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 비율은 53.4%, 혼합형 수업 비율은 39.5%이다. 지난학기 대면 수업 비율이 56%, 혼합형 수업 비율이 35%였던 데 비해, 1.9%p 늘어난 수치다.

시험 운영과 성적평가 방식 역시 이전학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오는 1학기 중간·기말 시험은 모두 대면을 원칙으로 1주간 진행되며,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학교는 지난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시험 기간 및 성적 평가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번학기부터 지난해 개편한 학점표준화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업 인원 45% 이내로 A- 이상 학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수업 인원 40% 이내에 B+ 이상 학점이 부여됐다. 상대평가 적용에 대한 예외 기준 역시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에서 20명 이하인 강좌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관련 기사: 성적 제도 대폭 개편...A 학점 비율 45%/대학주보 제1695호(2023.01.03.))

강의실 내 학생들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하향되면서 교내·외 수업과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통학버스의 경우 여전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다수가 밀집한 경우에도 교강사 재량하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의 논의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사령

명 <정기자>
박서현(체육학 2022)
양세빈(국어국문학 2021)
장비슬(국어국문학 2021)
정혜원(국어국문학 2021)